

現・前職이 하나로 !

- 이택순 청장, 全國 警察에 선배警友 배려 강조 -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예전 선배 경찰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기반 위에 자리”

구홍일 경우회장이 조직의 정체성을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라고 정리하고 전국 경우회와 경찰관서를 순회하며 전·현직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택순 경찰청장이 전국 15만 경찰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선배警友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나서 진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청장이 「老兵은 죽지 않는다」라는 제하에 쓴 이 편지에는 실로 선배 경우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뜻이 진하게 배어나고 있다.

이 청장은 편지를 통해 「며칠 전 짬을 내 퇴직한 선배경찰관의 자제님 결혼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고,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답사를 나누던 중 거의 모든 분들이 경찰청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현직 이상으로 많이 알고 계시다는 것과, 특히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는 열변을 토로하시는 것을 보고 무척 감동 받았다」면서 「‘우리는 외롭지 않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선배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야겠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가끔씩 뒤돌아 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으며, 미래와 현재만을 생각하면서 지나 온 만남을 너무 쉽게 잊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예전 선배 경찰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기반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청장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 갈 뿐이다”(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라는 1951년 맥아더 장군이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남긴 고별연설의 마지막 부분처럼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맥아더도 적군의 총·칼보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이 더 두려웠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청장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나를 끌어주었던 선배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옛정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의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자」며, 「오늘은 최근 들어 연락이 뜸해진 선배 한 분께 전화를 드려볼까 하니, 여러분들도 예전의 선배들에게 전화 한번 드려보는 것이 어떨겠느냐!」며 편지를 마무리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이 청장의 선배 경우 예우에 관한 소신은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이라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경우회 집행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변화를 위한 새

로운 시도는 외부에서 경우조직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으며, 전현직이 상호 발전의 토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우회가 그 일환으로 봉사활동의 생활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방법·교통 및 거리질서 유지, 청소년 선도, 미아 및 가출인 찾기, 교통질서 확립 등은 부족한 경력을 지원하고 조직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두면서 대내외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로 구홍일 경우회장은 금년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발전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우리의 선배들이 결코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택순 청장의 선배 사랑에 대한 강한 소신처럼 현직이 선배 경우들을 배려해 주고, 선배 경우가 현직들을 아끼고 성원하는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전·현직은 “영원한 경찰인”이라는 공동체를 속에서 함께 정진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경찰병원 재난구호팀 창설

신속한 의료지원 활동 기대



경찰병원이 최근 2층 대회의실에서 ‘재난구호팀’을 창설하고 국내·외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병원 관계자는 「이번에 창설된 재난구호팀은 경찰병원을 대표하여 재난·재해가 발생되면 즉시 파견되어 활동을 펼치는 것을 비롯, 국내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도 하게 된다」면서 「의료지원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나아

가 국제 연대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병원은 이번 재난구호팀 창설 이전에도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지역인 강원도 평창·정선지역과 지난 2005년 1월과 10월 인도네시아 아체주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대한 지진피해 의료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수차례의 지원 활동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 왔다.

本廳, 地方廳 등 기획부서 감축

현장치안 강화 위해 519명 일선 배치

경찰청이 현장중심의 인력운용을 위해 금년도 정기인사에서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및 부속기관 등 기획부서에 근무중인 경찰관 519명을 감축해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경찰서와 지구대 등 일선 경찰관서로 배치했다.

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 는 이택순 경찰청장의 현장중심 조직운영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활안전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여 살인 성폭력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사건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특히 서민 소외계층

다가옴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선거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금번 인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부터 모범을 보인 만큼 지방청과 일선관서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일선현장의 인력을 보강하여 한층 품격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국민과 직접 마주하는 경찰관들은 정성스런 자세와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접하듯 친절하게 대우로 주민을 대하고 인원이 감축된 부서에서는 누구나가 Multi-player가 되어 일당백(一當百)의 실력을 갖추는 한편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일을 줄임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단행된 인력조정은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간소하며 유연하게 처리하자는 3S(Speed Simple Soft) 운동의 신호탄으로 경찰 안팎에서는 향후 조직관리가 업무 효율성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현장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밀한 인력진단을 거쳐 치안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단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위이하 근속승진 시행

- 조직침체현상 없도록 실적과 경쟁 원리 고려 -

경찰청이 『지난 2005년 12월 29일 공포된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4월 7일자로 경위 근속승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승진직체가 심각한 하위직 경찰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장 경사의 근속승진 소요 연수를 7년과 8년에서 6년과 7년으로 각 1년씩 단축하고 경사 8년 이상 재직시 경위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7일 순경에서 경장으로 2,730명 경찰에서 경사로 6,039명을 승진시킨 바 있는데, 경위는 근속승진확대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직원 및 내부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경위 근속승진 요건은 징계 등 승진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근무성적도 경장 경사는 최근 2년간 매년 37.5점(75%) 이상이면 승진할 수 있으나, 경위는 최근 3년간 매년 40점(80%) 이상이어야 하며 40점이 넘더라도 승진대상자의 하위 40%에 해당할 경우 탈락시킴으로써 근속승진으로 인한 조직의 침체현상을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경장 경사 근속승진은 분기별로 연 4회 시행하고 있으나 경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연 2회 하도록 축소하였다.

이로써 경위 근속승진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자동승진이 아니라 실적과 경쟁의 원리에 따라 승진하게 되어 앞으로 경찰 조직에 새ลม개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06년 상반기에는 4,100

여명의 대상자 중 요건에 맞는 2,400여명이 승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사로 퇴직해야 하는 많은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근속승진으로 늘어나는 경위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치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험이 많고 노련한 경위를 유치인보호관으로 임명하는 한편 교통사고 조사나 지능범죄 수사 등 다양한 경력과 익숙한 경험이 필요한 보직에 경위를 우선 배치함으로써 근속승진 확대가 궁극적으로 더욱 향상된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우신문 기고문은 이렇게!

時論, 提言, 독자의 소리 등 경우신문에 기고하실 분은
경찰발전이나 경우회 활성화 등
전현직 경찰과 관련된 내용을 200자 원고지 8매이내
(A4용지 기준 2장이내=글자급수 14포인트)로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搜查權 문제 빠른 시일내 매듭

〈1면에 이어〉

또한 한 총리 대행은 「국민들의 경찰활동에 대한 기대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경찰은 반드시 치안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범죄 및 사회문제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과 치안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통해서 국민의 만족도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작은 법과 질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평화적 집회시위의 합리적 문화를 국민과 함께 창출해 나갈 것과 조직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에는 무엇보다 먼저 강력하게 대처하여 평온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 대행은 「인권의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만큼 시대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걸맞게 우리 경찰은 인권수호의 보루로서 그 책무와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경찰관 여러분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지니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적, 물

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 대행은 「다양한 가치와 빠른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자발한 지혜는 성숙한 우리 민주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을 섬기는 믿음직스러운 신세대로 전문경찰관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주인공이 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홍일 경우회장은 이날 기념식 이후 가진 총리 행행을 비롯한 내외귀빈들이 함께 한 환담자리에서 수사권 조정문제를 거론하고 「총리 대행께서 치사에서 언급하셨듯이 검·경간의 수사구조 개혁문제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경찰대학은 지난 81년에 1기생 입학을 시작으로 매년 법학과, 행정학과 각 60명씩 12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 졸업생 117명을 포함해 총 2천 5백 25명(경무관 2명, 총경 100명, 경정 423명, 경감 832명, 경위 1,099명)의 엘리트 졸업생을 배출시켰다.

「警友會」를 사칭한 태극기 판매자 신고 바랍니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 경우회를 사칭, 태극기 등 각종 물품을 강매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전국경찰에 단속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역 경우회에 신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경우회 각 시도회 및 지역회의 사업은 중앙회장의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물품의 판매사업 등은 일체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일부 물지각한 사람들이 「경우회」명의를 도용하여 국기, 족자, 책자 등 각종 물품을 강매하고 있는 것은 본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공판중심주의 재판 시범 실시

- 서울 등 6개 재판부에서 -

대검찰청이 최근 「전국 검찰청에서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서울 등 5개 지방법원 6개 재판부에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시범실시하기로 법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사가 재판 전에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피고인 등은 법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적극 밝힐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근호 대검 공판 송무부장은 지난 달 21일 「경찰 의견서나 수사상황 보고서 등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자료와 증거는 법정에 아예 제출하지 않고, 공판 전에 증거를 내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판단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소된 기록 등을 보고 복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거분리제출 제도는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낼뿐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내지 않고, 증거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뒤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남부지검 등 3곳의 지검에서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왔었다.

또한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 2개 재판부(형사합의 25부, 형사1 단독)와 대전, 대구, 광주, 부산지법의 1개 재판부에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